

영어초점구문에 나타나는 초점발화의 음향음성학적 특성

고려대 영문학과
김 기 호

서 론

초점에 대한 언급이 Halliday(1967)에 의해 처음으로 시작된 이래로 초점의 개념에 대한 다양한 접근과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일반적으로, 초점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첫째, 초점은 문맥에서 복구가 불가능한 요소를 가리킨다. 초점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언급한 Halliday(1967)에 따르면, 초점이란 신정보를 가리키며 이전 담화 문맥에서 복구할 수 없는 정보가 곧 초점이다.

둘째, 초점은 전제(presupposition)와 대응되는 개념이다. Jackendoff(1972)에 따르면, 담화 문맥에서 이루어지는 발화는 화자와 청자 사이에 공유된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로 나뉘며, 그 중 공유된 정보가 전제이고 이에 상보적으로 대응되는 비전제(non-presupposed)가 곧 초점이다.

셋째, 초점은 화제(topic)와 대응되는 개념이다. Sgall(1973)과 Gundel(1974)에 따르면, 하나의 발화는 문맥상 화제와 초점으로 나뉘며 화제는 흔히 문장에서 ‘무엇에 대해 말하려고 하는가’인 반면, 초점은 발화에서 화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으로서 담화에서 ‘화제에 대해서 서술되고 있는 바’를 나타낸다고 본다.

이와 같이 초점은 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용어를 통해 정의되어 왔다. 위의 세 가지 관점에서의 초점 정의는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초점이 담화 문맥에서 화자와 청자 사이에 전제되지 않은 어떤 새로운 내용을 나타낸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1980년대 이전까지의 초점에 대한 연구는 영어 문장의 음성적 구현보다는 통사적, 구조적, 의미적 측면에 중점을 두는 연구(Halliday, 1967 ; Chomsky & Halle, 1968 ; Bresnan, 1971)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는 영어 원어민 화자들이 구현하는 실제적인 억양 실현 양상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 이후, 초점과 억양의 관련성을 규명하려는 몇몇 시도(Bolinger, 1989 ; Cruttenden, 1986)가 있었고, 각각의 이론들은 초점이 어떠한 방식으로 액센트에 의해 드러나는지 설명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들 이론이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는 실정이며, 특히 실험적 데이터에 기반을 두고 규명된 이론이 아니라는 취약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실제 영어 발화 데이터를 바탕으로 원어민 화자들이 구현하는 초점의 실제 억양 구현의 특징들을 정확히 반영한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제시함으로써 실제 상황에서 발화되는 초점의 음운적, 음성적 특성을 보이고, 기존 이론들과 실제 억양 양상이 어떤 면에서 부합하고 어떤 면에서 부합하지 않는지 비교해 보고자 한다.

초점의 종류

1. 초점의 종류 : 의미 초점과 대조초점

의미 초점이란 주로 의문사 의문문(wh-question)에 대한 대답의 일부가 된다. 일반적으로 화제, 전제, 배경과는 상보적인 관계에 있는 개념을 포괄하여 넓은 의미에서 의미 초점에 포함시킨다. 즉, 화자가 청자가 미리 공유하지 않은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정보에 해당하는 언어적인 초점화를 의미 초점이라 일컫는다(Cultler and Fodor, 1979 ; Gundel, 1999).

대조초점이란 하나의 문장성분이 명시적으로나 암시적으로 다른 요소와 대조되고 있을 때의 의미적, 청각적 돋들림을 의미한다. 어떤 문장 성분이 대체물과 대조를 이루면 대조 초점을 받는다. 대체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어떤 항목의 잠재적인 가치를 이미 어느 정도 맥락화해주기 때문에 대조 초점은 의미 초점보다 덜 새롭게 느껴지는 효과가 생기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대체물의 존재가 대조 초점을 더 두드러지게 만들기도 한다. 예를 들어 bad라는 상대가 있

을 경우 good의 존재는 예측이 가능하지만, bad라는 가치와의 비교를 통해 good의 존재는 더욱 많은 주의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대체물에 의해 한 문장 성분이 대조 될 때 나타나는 돋들림이 바로 대조 초점이다.

2. 협의 초점과 광의 초점

협의 초점과 광의 초점은 초점을 받는 구성성분의 크기와 관련하는 개념이다. 협의 초점이란 맥락상 문장의 한 단어 단위의 특정 문장 구성성분이 대조되고 있어 초점의 해당 범위가 하나의 단어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대조 초점은 주로 협의 초점을 가지게 된다. 초점의 영역이 좁을수록 가능한 대체물의 집합이 작아지고 따라서 대조성이 강해지기 때문이다. Prevost(1995)는 대조 초점을 매우 두드러진 협의 초점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반면 광의 초점은 초점을 받는 요소가 단어 하나에 한정되지 않으며 구(phrase)나 문장 전체가 초점의 대상이 된다. 광의 초점에 해당하는 모든 어휘항목이 액센트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광의 초점은 협의 초점과는 달리 초점과 액센트 사이의 직접적인 상응을 가정하기 어렵다.

광의 초점과 협의 초점은 초점구조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액센트 분포를 갖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모호성이 생겨날 수 있다. (1)의 예는 광의 초점과 협의 초점간의 이러한 모호성을 드러내고 있다.

(1) Reporter : Why do you[rob bank]?

Dillinger : Because there's where the money is. (Ladd, 1996)

(1)은 한 유명 은행 강도와 기자 사이에 실제 있었던 대화이다. 기자의 질문의 본래의 의도는 왜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벌지 않고 은행을 터는 일을 하느냐는 것이었다. 즉, 동사구 rob bank 전체가 광의 초점을 가지는 문맥인 것이다. 이러한 문맥에서 액센트는 동사구 내의 가장 오른쪽 단어인 bank에만 위치하기도 한다. 이 경우에, Why do you rob [bank]?와 같이 bank 자체에만 협의 초점이 오는 질문, 즉 왜 상점이나 다른 곳이 아닌 은행을 털었는가 하는 질문과 동일하게 들리게 된다. 이러한 모호성을 이용하여 은행 강도는 ‘은행이 바로 돈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라고 재치 있게 질문에 대응한 것이다.

이처럼 광의초점은 협의초점과는 달리 초점과 액센트 사이의 직접적인 상응을 가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호성이 유발되며, 광의 초점에서 액센트의 위치를 결정하는 문제는 많이 학자들의 관심을 끌게 된다.

초점에 대한 다양한 접근

Chomsky and Halle(1968)는 SPE에서 문장 차원에서의 강세 연구를 생성문법적인 관점에서 시도하였다. 이들 생성문법적인 관점에서는 강세 부여를 순수하게 통사적인 규칙으로써 기술하고자 하였다. 대표적인 규칙으로 중핵강세규칙(NSR)을 들 수 있는데, 이 규칙에 따르면 모든 중립 문장은 가장 오른쪽에 오는 내용어의 강세 음절이 성조 음절이 되면서 주강세를 받게 된다. 이러한 생성문법적인 관점에서는 모든 영어 문장 강세를 이와 같은 통사적 규칙을 통해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실제 영어 억양에서는 이들 생성문법학자들이 주장한 것과 같은 일정한 강세 패턴을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생성문법적 관점에서는 초점 발화에서 나타나는 의미적, 화용적 요소의 개입을 대조 강세라고 명명하고 단순히 예외적인 패턴으로 간주하여 사실상 초점을 자신들의 강세 이론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따라서 생성문법학자들의 이론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억양 패턴이 무수하게 많이 나타나게 되어 그 이론적 한계가 뚜렷하였다.

Selkirk(1984)와 Gussenhoven(1983)은 초점의 분포와 액센트의 분포를 구분하여 광의 초점에서 주로 나타나는 액센트와 초점의 불일치를 해결하려고 시도하였다. 먼저, Selkirk는 통사구조에 기반한 초점 투사 이론으로 초점과 액센트 실현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Selkirk는 핵과 논항 및 부가어로 이루어진 구성성분이 광의 초점을 받을 때, 논항에만 액센트가 실현이 되어도 핵으로 초점이 투사되고, 또한 궁극적으로는 문장 전체로까지 초점을 투사할 수 있어서 초점이 되는 구성성분 내 핵과 논항, 부가어 등에 모두 액센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Gussenhoven(1983) 역시 초점이 되는 요소와 액센트를 받는 요소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바탕으로 발화의 어떤 부분이 초점을 받는가 하는 것과 주어진 초점이 어떻게 액센트의 위치를 통해 드러나는가를 독립적이고 상보적

인 영역으로 구분 짓고 이들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이때, 무엇이 초점이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은 문맥의 영향을 고려한 화자의 결정에 달려있으며, 일단 발화에서 초점을 받을 부분이 결정되고 나면 액센트의 위치는 문장 강세부여 규칙(Sentence Accent Assignment Rule)과 같은 언어 특수적 규칙(language-specific rules)이나 구조적인 규칙(structural principles)에 의해 정해진다고 보았다. 이러한 규칙은 전통적인 표준강세 규칙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규칙에 의하면 광의 초점을 받는 구성성분을 구성하는 핵과 논항이 서로 이웃해 있을 때, 논항에 액센트가 실현되면 핵이 받아야 할 액센트는 해지될 수 있다고 본다.

Gussenhoven과 Selkirk(1984)는 통사적인 관점, 구체적으로 핵과 논항 구조라는 관점에서 광의 초점과 액센트 패턴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통사 구조에 절대적으로 의존하여 액센트가 투사된다고 보는 Selkirk의 확장 초점 투사를 따를 것인지, 문맥이나 화자의 의도에 의해 결정되는 초점이 표면적인 통사구조에 근거한 규칙을 통해 액센트로 드러나게 된다고 보는 Gussenhoven의 제한 초점 투사를 따를 것인지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두 초점 투사 이론 역시 통사적인 관점에 근거하고 있어 SPE의 중핵강세규칙과 마찬가지로 예외로 제시한 문장에 대해서는 명쾌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억양 패턴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의 이러한 SPE의 한계와 초점 투사 이론의 문제점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지적되어 왔다. 그 대표적인 학자가 Bolinger이다. 구조중심 초점하 액센트 이론과는 달리 담화 문맥이나 화자의 의도에 따라 초점이 결정된다는 그의 견해를 급진적 초점하 액센트 이론이라 한다. 급진적 초점하 액센트 이론에서는, 초점 받은 구성소 내에서의 액센트 분포를 그 구성소 자체가 가지고 있는 화용적 요소에 의존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초점의 분포와 액센트의 분포 사이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즉, 문장 내의 한 요소가 액센트를 받으면 그 요소는 초점이 되는 것이며, 동시에 초점이 되는 요소에는 액센트가 주어진다고 본다. Bolinger(1972, 1985)는 초점의 의미적인 면을 강조하여, 모든 액센트는 화자가 그 의미성을 부여하기 위해 선택하는 요소라고 주장하며, 피치 액센트가 위치하는 단어가 곧 초점이 된다고 언급한다. 또한 급진적 초점하 액센트 이론에서는 구조 중심 초점하 액센트 이론과는 달리 한 구절이나 문장 전체가 초점이 되는 광의 초점을 특별하게 취급하지 않는다. 즉, 광의 초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액센트는 의미적으로 보다 중요한 단어에 나타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음 (2)의 예문을 살펴보자.

(2) He took a BATH.

- a) He shaved and took a bath.
- b) He didn't take a shower, he took a bath. (Ladd, 1996)

(2)의 예문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단어는 bath이며, 미국 영어에서 bath를 말하고자 할 때 took이라는 동사는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따라서 a)의 문맥에서와 같이 took a bath 전체가 초점을 받는 광의 초점의 경우에도 bath에만 액센트가 오는 패턴이 나타날 수 있으며, b)와 같이 bath 만이 초점을 받는 협의 초점의 경우에도 물론 bath에만 액센트를 받게된다. 이 두 경우에 모두 bath가 가장 정보성(informativeness)을 많이 포함하는 단어이므로 액센트에 의해서 가장 부각되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예를 통해 볼 수 있듯이, 급진적 초점하 액센트 이론에서는 어휘적인 의미나 세상에 대한 지식을 통해 나타나는 보다 일반적인 정보성과, 협의 초점에서 나타나는 정보성 사이에 큰 구분을 두지 않는다. Bolinger의 이론은 생성문법적 이론보다 좀 더 많은 예를 설명할 수 있었고 초점과 액센트의 관계에 대하여 보다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었으나, 실험에 기반하지 않은 연구라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미국인들의 실제 초점 발화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초점의 음성적, 음운적 특징을 연구한 최근 실험 논문들을 소개하고, 실험에 근거한 초점의 억양적 실현 양상의 특징들을 요약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초점의 억양상의 특징

초점은 초점받은 단어에서 피치의 정점을 이루는 H* 피치액센트나 초점 받은 단어에서 피치가 급격히 상승하는 L+H* 피치 액센트로 구현되는 경향이 있다. 기존의 이론적 연구에서는 초점이나 rheme은 H* 피치액센트로 구현되며, 화제 혹은 theme은 L+H* 피치액센트로 실현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L+H* 역시

초점에 구현에 주로 사용되는 액센트 패턴임을 밝혀내었다.

1. 의미 초점과 대조 초점의 억양 실현 양상

먼저 의미 초점과 대조 초점의 억양상의 실현 양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의미 초점이란 주로 문장 내에서 wh-의문문의 대답에 해당되는 부분, 즉 문맥상 새로 제시되는 정보를 말하며, 대조 초점(contrastive focus)이란 문맥상에서 암시적으로나 명시적으로 다른 성분과 대조를 이루거나(Gundel, 1999), 혹은 선행 발화를 수정하는 요소에 초점이 오는 경우를 가리킨다. 다음 예문 중 (3)은 의미 초점을 이끌어 내도록 문맥을 제시하였고 (4)는 대조 초점을 이끌어 내도록 문맥을 제시한 것이다.

(3) A : What did the man give to his fiancee?

B : He gave a diamond to his fiancee.

(4) A : Did the man give an emerald to his fiancee?

B : No. He gave a diamond to his fiancee. (옥유롬, 2003)

위에서 (3)의 예문은 diamond에 의미 초점이 주어졌으며, (4)는 동일 단어에 대조 초점이 주어진 경우에 해당한다. 실험 결과, 의미 초점은 주로 H* 피치 액센트와 L+H* 피치 액센트로 실현되었으며, 이 때 H*의 실현 비율(73%)이 L+H*(25.8%)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대조 초점 역시 H* 피치 액센트(57.9%)와 L+H* 피치 액센트(41.3%)로 주로 실현되었다. L+H*의 구현 비율을 살펴 보면, 의미 초점이 L+H*로 실현된 경우(25.8%)보다는 대조 초점이 L+H*로 실현된 경우(41.3%)가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옥유롬, 2003). 이는 L+H*가 대조나 수정의 의미를 지닌 발화에 주로 부여된다고 주장한 Pierrehumbert & Hirschberg(1990)의 의견과도 일치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피치 정점의 높이에 따라 초점의 인식이 어떻게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한 인지 실험을 소개하도록 하겠다. 한 문장 성분의 피치 정점을 조정하여 정점의 높이에 따라 원어민들이 어떤 초점을 받은 문장으로 인지하는지 그 인지도의 변화를 살피기 위해 (5)와 같은 실험 문장을 원어민에게 들려주고 인지 실험을 수행하였다.

(5) a. My daughter's puppy died.

b. The knife is on the table. (송재영, 2002)

(5a)와 (5b)는 각각 내용어인 died와 기능어인 on의 피치 정점 높이를 변화시킨 문장으로서, 200Hz에서 380Hz 까지 피치 정점을 높이면서 피험자에게 들려주었다. 실험 결과, 원어민은 피치 정점의 상승에 따라 중립 문장 → 의미 초점 → 대조 초점의 순서로 인지하는 경향을 뚜렷이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원어민이 피치 정점의 높이를 초점을 인식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단서로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공해 준다.

2. 협의 초점과 광의 초점의 억양 실현 양상

다음으로, 협의 초점과 광의 초점의 억양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협의 초점이란 맥락상 문장의 한 단어 단위의 특정 문장 구성성분(constituent) 개념이 두드러지게 되어 초점의 해당 범위가 하나의 단어에 해당되는 경우를 일컫는다. 이러한 협의 초점에는 대조되는 어휘에 운율적 돋돌림이 실현되기 때문에 해당 어휘항목에 H* 피치 액센트가 실현되거나 L+H* 피치 액센트가 실현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6) A : Who won the marathon?

B : [Esther] won the marathon

H*

(7) A : Esther saw the marathon?

B : No, she[won] the marathon

H*

(8) A : What did Esther win?

B : She won [the marathon].

L + H*

(이혜숙, 2001)

다음으로 (9), (10)와 같은 광의 초점에서 나타나는 억양 패턴을 살펴보자. 광의초점(broad focus)이란 문맥에서 주어지는 초점의 영역이 하나의 단어가 아닌 더 큰 문장성분인 경우를 일컫는다. 광의초점은 협의초점과는 달리 초점과 액센트 사이의 직접적인 상응을 가정하기 어렵다. 즉, 광의 초점은 초점의 영역에 해당하는 모든 어휘항목이 피치액센트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광의 초점에서 액센트와 초점의 불일치를 해결하려는 시도인 Selkirk(1984)와 Gussenhoven(1983)의 통사구조에 기반한 초점 투사 이론이 있었으나 이는 액센트가 어떤 항목에 위치할 경우에 통사 구조에 기초하여 초점의 영역이 어떻게 확대될 수 있는 가를 연구하거나 초점의 영역에 포함된 표면적인 통사 구조속에서 규칙에 따라 어떤 부분이 액센트로 실현될 것인가를 예측하려는 노력이었다. 통사 구조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상정하기 보다는 실제로 광의 초점 발화가 어떻게 음운, 음성적으로 구현되는가에 관심을 둔 연구는 다음과 같이 시도되었다.

(9) A : How did Esther spend her Thanksgiving?

B : She [won the marathon].

(10) A : Did Esther enjoy the marathon?

B : Yes. She [won the marathon]. (이혜숙, 2001)

(9)의 문맥은 B 문장의 동사구 전체를 초점의 영역에 포함시키며, 동사와 목적어 모두가 신정보로 제시되는 경우이다. 초점 투사 원리에 의하면 이러한 경우 액센트가 논항인 *marathon*에만 위치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실제 실험 결과 논항에만 피치 액센트가 부여된 빈도수는 12%로 매우 낮았으며, 문맥상 새로운 정보인 동사와 목적어 모두에 피치 액센트가 분포하는 비율은 80%로 나타났다.

(10)의 문맥은 B 문장의 동사구 전체를 초점의 영역에 포함시키거나, 동사만 신정보로 제시되고 목적어는 구정보인 문장을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문장은 광의 초점임에도 불구하고 목적어에는 액센트가 분포하지 않으며 동사에만 H* 혹은 L+H*피치 액센트가 구현되는 경향을 보인다.

Birch and Clifton(1995)는 광의 초점에서의 액센트 패턴을 정보구조와의 관계 속에서 파악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를 수행하였다.

(11) QA : Isn't Kerry pretty smart?

QB : Isn't Kerry good at math?

R1 : Yes, she TEACHES MATH.

R2 : Yes, she teaches MATH.

R3 : Yes, she TEACHES math.

위 예문은 R1, R2, R3 모두가 광의 초점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QA, QB와 같은 문맥을 제시한 것이다. 이들 중 어떤 질문-대답쌍이 가장 자연스러운 발화로 인식되는지 연구한 결과 QA에 대한 응답으로는 R1과 R2가 모두 가능하며, QB에 대한 응답으로는 R3가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즉, 광의 초점 내 목적어가 구정보인 경우(QB) 동사에는 액센트가 실현되고 목적어는 액센트를 해지되는 것(R3)이 더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광의 초점 내 동사와 목적어가 모두 신정보인 경우는 동사와 목적어에 각각 액센트를 주거나 목적어에만 액센트를 부여하여 동사에까지 투사시키는 것이 모두 자연스러운 발화로 인지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실험 결과는 광의 초점의 경우, 술어가 초점을 받은 논항에 이웃하여 있으면 액센트를 받을 필요가 없거나 받아서는 안된다는 Gussenhoven(1992)의 주장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3. 액센트 해지

초점 발화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억양상의 특징 중 하나로 액센트 해지(deaccentuation) 현상을 들 수 있다. 액센트 해지란 문장 내에서 액센트를 받을 여지가 있는 특정 구성성분의 액센트가 사라져 억양상 돋들리지 않게 되는 현상이다.

다. 액센트 해지는 우선 앞선 담화 문맥 상에서 이미 언급된 어휘 항목이 다시 반복되는 구정보, 즉 비초점에 주로 나타나게 된다.

(12) Q : Who came with Manny?

A : Anna came with Manny

(13) Q : Was it a sad story?

A : No, it was an interesting story. (강선미, 2002)

(12) 문장에서는 who라는 의문사의 대답이 되는 Anna가 초점을 받는 어휘이다. 이 경우 초점 뒤에 나타나는 모든 문장 성분들의 액센트가 사라져서 발화되는 것이 중요한 억양상의 특징이다. (13)의 예에서는 sad와 interesting이 대조를 이루면서 interesting은 초점을 받게 되고 피치 액센트로 구현되지만 뒤따라 나오는 story는 구정보이자 비초점 부분으로서 액센트가 해지된다.

이처럼 비초점 부분의 액센트가 해지되거나, 혹은 초점의 영역에 포함되더라도 구정보로 제시되는 어휘 항목의 액센트가 해지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초점의 역영 내에서 신정보로 제시된 어휘에도 액센트 해지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14) Q : Where are you going?

A : I'm going over to the doctor's place.

(15) A : Where are you going?

B : I'm going over to the doctor's barn. (강선미, 2002)

위 두 문장의 초점의 영역은 the doctor's place와 the doctor's barn으로 서로 유사하며 이 두 명사구는 모두 신정보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문장의 억양은 서로 다르게 구현된다. (14) 문장에서는 barn에 H* 피치 액센트가 구현되는 것이 반해, place에는 액센트가 해지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는 통사적 측면이나 정보구조(신정보/구정보) 이외에도 초점의 억양 실현에 또 다른 요소가 작용하고 있음을 증명해 주는 예가 된다. 이 문장들의 억양 구현에 차이를 만들어 내는 요인은 바로 place와 barn이라는 어휘의 의미적 비중의 차이이다. place와 같은 단어는 barn과 같은 일반적인 명사와는 달리 단어 자체의 의미가 비어 있으며 따라서 의미적 비중이 낮으므로 주로 액센트가 해지되어 발화된다. 이와 같은 실제 발화 실험을 통해서 기존의 이론들이 초점 발화의 액센트의 분포를 정확히 예측해 주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원어민의 발화에서는 초점 뒤의 내용어에서 역시 급격한 피치의 하강을 동반한 액센트 해지 현상이 발견되었다.

(16) A : I wonder "who".

B : John read novels in his room every Monday. (강선미, 2002)

위 (16)의 예는 초점이 John에 위치하지만 문장 전체가 새로운 정보를 언급하고 있는 경우이다. 즉, read나 novel과 같은 어휘항목 역시 신정보를 나타내는 내용어로서 액센트를 받을 여지가 있지만, 위의 예에서는 John에 초점이 H*피치 액센트로 구현된 이후 피치의 급격한 하강을 보이면서 read와 novel에는 피치 액센트가 분포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즉, 초점 뒤에 위치하는 내용어는 비록 신정보를 전달한다고 하더라도 액센트가 해지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초점 뒤 내용어의 액센트 해지는 중간구나 억양구의 경계가 생기기까지의 모든 내용어에 걸쳐서 나타나기도 하며, 초점 바로 뒤의 내용어 하나에만 나타나기도 한다.

결 론

이처럼 초점의 실제 억양상의 실현 양상은 H*나 L+H*의 피치액센트, 초점 뒤 내용어의 액센트 해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현 양상은 문맥에 포함된 정보구조나 의미적 측면에 의해 큰 영향을 받고 있음 역시 간과

할 수 없다. 실제 발화에서의 초점 구현은 의미적, 문맥적 화용적 측면이 모두 유기적으로 연관됨으로서 나타나는 집합체이다. 따라서 어떤 한 가지 관점에서 초점의 실현 양상을 예측하는 것은 그 실체를 반영하기에 부족하다. 기존 이론들에서와 같이 통사적 또는 의미적 측면에서 음성적 실현 양상을 예측하는 것은 복합적인 요소들이 상호 영향을 주고 받는 과정을 통해 억양으로 표출되는 초점 현상을 정확하게 기술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 발화 데이터를 통해 초점의 음성적 실현 양상을 관찰 분석하고, 그 분석 결과를 통사적, 의미적, 문맥적, 화용적 측면과 연관시켜 그 연결점을 찾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초점의 음운 음성적 구현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초점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봄으로써 명확히 알 수 있다. 초점은 화자와 청자 사이에서 문장 내의 어떤 부분이 상호간의 관심이 대상이며 대화의 중심인가를 두드러지게 해 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초점은 화자와 청자 사이에서 어떻게 들려지는가 하는 음성적 실현이 초점의 실체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초점의 연구는 그 음성적 실현 양상에 대한 연구가 기반을 이루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초점의 음성 음운적 구현 양상을 파악하고 초점의 구현 양상에 어떤 요소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그 관련성을 규명하고 규칙성을 찾아내려는 노력은 앞으로 지속되어야 한다고 본다.